

제2회 전국대학발명동아리경진대회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는 예비 기술개발 인력인 대학생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활성화와 함께 우수 발명동아리 발굴 및 포상을 통한 대학생들의 발명욕을 고취시키고, 아이디어와 기술혁신 사례 발표를 통한 예비산업 기술개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2회 전국 대학발명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올해에는 오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발명 아이디어 창출과정 및 권리화까지의 가상 사례발표와 함께 발명의 창출 과정, 발명의 기술성 및 경제성, 발명의 권리화 과정, 발명동아리 운영실적 등이 평가된다. 경진대회의 신청마감은 7월 15일까지이며, 7월 중순 서류심사를 거쳐 대회 일정 중에 사례발표 및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어진다.

참가 신청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이며, 자격은 전국 대학(교) 재학생인 발명동아리 회원으로서 2~3인이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지도교수 또는 대학(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운영 확인을 필한 경우에는 동아리 내 3개팀 이내로 복수 참가도 가능하다(학교 내 참가 동아리 수 제한 없음).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며 참가팀에게 참가보조비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다운로드하는 사이트 www.ipa-cademy.net 또는 www.inventplus.net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부 서인철 주임
(02)3459-2764 / seoic@kipa.org

과기부, 차세대 일류기술 50개 선정

포스트 - 반도체 초일류 기술 선정

과학기술부는 5~10년 후 경제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초일류기술 50개를 선정했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미래전략 기술기획위원회와 과기부 기획단, 각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력·유망 분야 기술 19개, 차세대 첨단기술 19개, 미래전략기술 12개 등 포스트-반

도체 초일류 기술을 선정했다.

주력·유망 분야는 현재 주력 분야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컴퓨터, 이동통신, 소재·부품, 수송 시스템, 에너지, 환경 등 8개 분야 19개 기술이 선정됐다. 또한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5~10년 후 고부가가치 창출로 유망 주력산업화가 가능한 차세대 첨단 기술로는 지식·소프트웨어, 스마트 서비스, 차세대 기능·소자, 지능형 정밀기계, 우주항공, 신 에너지, 의약, 바이오, 실버 등 8개 분야 19개 기술이 꼽혔다.

그리고 현재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전략 신기술로는 차세대 기능소재·소자, 지능형 정밀기계, 로봇, 우주항공, 신 에너지, 의약, 바이오 등 7개 분야에서 12개 기술이 선정됐다.

조명기구, 디자인 개발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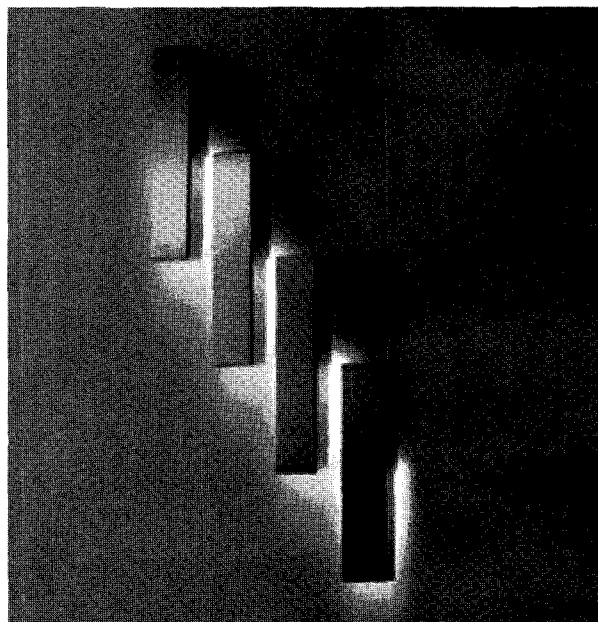
최근 우리 나라 의장출원의 주요 특징으로는 가구, 포장지 등 생활용품들과 관련된 제품이 다수 출원되고 있어 디자인 개발이 이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조명등과 관련된 의장 출원이 전년 대비 45.3%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청이 최근 3년간의 산업부문별 의장등록 출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구, 포장지, 직물지, 조명기구, 음식 조리용 용기, 차량, 신변장식용품 등의 순으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제품들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디자인산업이 단순 기능성 위주에서 탈피하여 생활에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감성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의장등록 출원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6,712건, 2001년 41,120건, 2002년 41,589 건으로 연 5%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련 있는 조명기구에 대한 의장출원은 2000년 738건, 2001년 756건, 2002년 1,157건으로 연 27% 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2002년에는 전년 대비 45.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가정과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는 실내용 조명기구는 2000년 264건, 2001년 351건, 2002년에는 682건으로 2002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0년도 이후 국민경제의 회복에 따라 일반수요자의 잠재된 욕구가 종래의 단순한 기능적 디자인 위주에서 이제는 생활공간과 조화와 멋을 추구하는 감성적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테리어의 기본이 되는 조명기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명기구 관련 의장등록출원의 대폭적인 증가는 주변 생활용품까지 파급되어 앞으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분야의 디자인 개발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더욱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여진다.



▲ 실내용 조명기구의 의장등록 출원은 2002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BM특허로 지킨다

국내 전자상거래의 시장 규모가 2001년 118조 9,000 억원에서 2002년 170조원으로 눈부신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관심 영역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보안·인증 기술을 전자상거래와 접목시킨 다양한 유형의 BM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은 보안·인증 관련 BM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1998년 이전에는 40여건 정도로 미미한 출원건수를 보였으나, 2000년 이후 560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2002년 출원의 출원인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64%(42건), 외국인이 36%(2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국인 중 22건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개별 출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BM특허가 주도되고 있다.

출원기술의 흐름을 보면 1999년까지는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기존의 보안·인증 기술을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에 단순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출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전자지갑, 전자화폐, 사이버카드를 이용한 결제에서부터 콘텐츠 보호, 거래 보증·보험, 인증매체, 모바일 등을 이용한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성 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출원되고 있다.

주요 특허출원기술로는 일회용 신용카드번호 생성을 통한 결제 방법,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본인확인 및 결제 방법, 인증정보 또는 결제정보를 내장한 CD등 인증매체를 이용한 결제 방법, 선불카드 및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결제처리 방법, 워터마킹 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 유통, 재사용 및 불법 복제 방지 방법 등이 있다.

향후 전자상거래는 인터넷·통신기술, 전자결제시스템, 물류시스템 등의 많은 구성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 구성요소들이 하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 나타날 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보안·인증 기술과 연계된 BM특허출원은 더욱더 다양한 유형을 띠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도체지재권 시장 지난해 4.7% 성장

지난해 세계 반도체 지적재산권(IP) 시장이 4.7% 성장한 9억3,380만달러에 이르며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C넷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반도체의 디자인과 특허를 판매하는 IP시장은 지난해 주요 판매처 칩시장이 1.9%의 저성장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업체별로는 세계 1위 IP업체 ARM이 전년 대비 10.1% 성장하며 시장점유율이 20% 가까이 육박했다.

C넷은 'ARM은 특히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 IP시장에서 강세를 보여 이같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풀이했다. 반면 2위 램버스는 9.2% 감소한 9,740만달러에 머물렀다. 또 시놉시스, TTP컴, 아티즌컴포넌트 등이 각각 62.7%, 46.8%, 57.2%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특히 모노리식 시스템 테크놀로지는 무려 162.1% 성장하며 10위로 뛰어올랐다.

가트너의 짐 킬리 부사장은 '최근 IP업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규모 실험을 추진하며 수익모델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체들은 IP모델에 집중하거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 공무원 20명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 과정’ 개최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IIPTI)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하여 이달 2일까지 2주에 걸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 베트남, 나미비아 등 약 20명의 개도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소개하는 ‘한국의 지재권 제도 과정’을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한국의 지재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재권 관련 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 등을 통해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열렸다.

한국은 지재권출원 세계 제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자출원시스템(KIPO-Net)운영 및 개도국 수출, WIPO PCT 국제조사기관 업무수행 등 지재권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선진 지재권제도를 개도국 공무원에게 적극 홍보함과 아울러 생명공학 특허의 최근 동향, 특허정보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

의와 토론도 병행함으로써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이번 세미나가 개최된 것으로 강사진은 특허청 기획관리관 김진, (주)웍스(WIPS) 정보분석가 정성일 등 특허청 내외의 지재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 기간 중 LG전자, 농심 공장,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기업체를 현장 견학하고 경주, 해인사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소그룹별로 한국인 가정을 방문하는 홈 비지팅(Home-Visiting),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인의 가정생활, 경제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가국간의 우호 증진과 함께 개도국의 지재권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활성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온라인 자료집 출간

정보공유연대(www.ipleft.or.kr)가 ‘대안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지적재산권은 산업사회의 틀을 갖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 맞지 않다고 하며, 홈페이지에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이란 온라인 자료집을 내놓았다.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left(왼쪽)’를 통해 봄으로써 규제보다는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등으로 꾸며져 있는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제1부)’, 공개코드와 공개사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등을 다룬 ‘디지털 기술과 지적재산권(제2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료집은 지난 2000년부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논문, 각종 자료를 모아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정보공유연대는 ‘디지털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산업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틀이 크다’며 ‘사회변화에 맞는 재산권의 의미를 이제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연대는 지적재산권의 권한 범위와 그 의미를 정보화사회에 맞게 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11월에 열린다

창의적인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일반인 등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이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우수기술인력의 벤처창업을 지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대전을 이같이 열기로 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이 전시회에는 대학생 예비 창업팀 150개 팀과 연구원, 대학교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한 일반창업팀 100개 팀 등 모두 250개 팀이 참여한다. 중기청은 이달 7일부터 19일까지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참가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참가팀을 선정기로 했다. 신청서는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venturestartup.org)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참가분야는 정보통신(소프트웨어·하드웨어·인터넷·

게임 콘텐츠 포함), 전기·전자 자동화, 기계 자동화부품, 화학(환경·생명공학·식품·섬유 포함), 생활 및 지식서비스(문화·광고·출판·디자인·캐릭터 포함) 등이다.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의 상금이 주어지고, 학생부 전시참가자에 대해서는 전액 1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창업대전에선 국내외의 성공 벤처인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대회기간동안 성공 벤처기업인들과의 교류의 장도 마련하며 창업지원 유공자에 대해서는 훈·포장을 수여하고 학생발명수상작 및 대학우수졸업작품 전시회를 함께 열 계획이다.

또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2일부터 사흘간 경기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창업스쿨’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노기술 특허 출원 활기

국내 출원, 미국과 일본을 4배 가량 앞질러

정부가 나노기술(NT)을 이용한 산업을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NT 특허출원건수가 미국과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특허는 반도체 전계발광소자(FED) 등에 쓰이는 탄소나노튜브 개발에 70% 이상 집중돼 향후 바이오 및 의약분야 등에서 차세대 NT를 둘러싸고 국제특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 반응병 심사관의 최근 보고서 ‘국내외 나노기술 특허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내 NT 특허출원은 지난 98년 3건에서 99년 57건, 2000년 137건, 2001년 187건으로 매년 30~50%씩 급증했고 LG전자가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허출원은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36건)과 일본(35건)을 4배 가량 앞질러 두 나라의 특허출원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특허출원 건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187건의 특허출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30여건이 반도체 공정기술에 사용되는 탄소나노튜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양적 성장에 비해 기술 성숙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의약·복합재료 등 고른 분야에서 특허를 보유, 기반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원인별 현황으로는 LG전자가 43건으로 수위를 차지한 데 이어 삼성SDI 28건, 삼성전자 9건 등으로 반도체 소사업체의 특허출원이 두드러졌으며 탄소나노튜브 소재 개발업체인 일진나노텍도 3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응병 심사관은 ‘최근 NT를 이용한 상품이 속속 개발되면서 미국과 일본업체간 특허분쟁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나라도 탄소나노튜브를 제외한 바이오·의약·복합재료 등에서 기반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특허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큰 만큼 NT 특허전략을 총체적으로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한미영)가 주관하여 열리는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가 지난달 12일과 18일, 두 차례 안양시와 강원도에서 열렸다.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이 무엇보다 더 큰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지식재산권이 좀 더 쉬운 의미로 생활 속에 다가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안양시는 지난달 12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안양시 여성단체장들의 연수에 이번 설명회를 포함시키고 여성 단체장들이 단체를 이끄는 데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강원도에서는 같은 달 18일 강원랜드의 직원들과 정선 지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창출에 관한 정보들과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발명과 아이디어들을 소개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하반기에도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써 이와 같은 설명회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이 개최자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기고문

최근 실용신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잘 알다시피 현행 실용신안제도는 선등록제도이다. 그래서 출원하고 나서 약 3개월이 경과되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 기술평가청구를 하여 기술평가에서 합격되어야만 실용신안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특히 보정에 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 우리 변리사들은 실용신안 심사과정에서 '정정불인정' 통지서를 많이 받고 있다.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면 출원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자진 보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발명가 여러분들은 특허출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특허출원은 등록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등록 후 심사를 하는 실용신안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시에는 명세서 및 도면을 잘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출원 후 정정하려고 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기술평가 불인정(심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하다.

실용신안은 간단한 고안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간이 제도에 보정을 엄격히 하고, 그 기회도 박탈하고 있음이 현행 실용신안법이므로 이는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평가제도는 사실상 특허법상의 심사청구제도에 대응되는 것이므로 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평가청구와 동시에 명세서 등에 대한 정정 기회도 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 상표·특허 등 사용료 과세 폐지 방침

일본 정부는 미·일 양국 재무부가 미·일조세조약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의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과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샤가 신문이 지난달 12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같은 과세 폐지는 일시적 세수감소 요인이 되지만 장차 예상되는 아시아 각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시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지적 재산입국' 목표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현재 55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원칙적으로 로열티가 발생한 국가에서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양국간 조약이 빠르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과세폐지 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샤는 말했다.

로열티 발생지에서 과세를 면제할 경우 로열티를 받는 모 회사가 있는 국가의 세수는 증대하는 반면 로열티를 지불하는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일본은행 통계에 따르면 특허 등의 사용료로 미국에 지불한 금액은 지난 2001년 시점에서 일본측 지불초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특허권 관련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

서울대 이공계 교수들이 직무와 연관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감사원과 특허청의 특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대와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특허권 정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직무와 연관된 1,100여 건의 특허권이 국가나 서울대가 아니라 교수나 학생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 특허는 1999년 이후 취득한 것으로 이번에 적발된 특허는 모두 서울대 '특허 재단'인 산학협력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한민구 공대학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대학이 특허 장려 정책을 쓰면서 개인명의 특허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당황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취득은 연구업적에 기록하는 등 공개를 해왔는데도 감사를 받게 되자 자궁심에 상처를 입은 교수들도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공립대학에 대해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 최대 5억원의 특허 이전료를 받은 경우 등 총 3,000여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국·공립 기관의 특허에 대해 종합계획을 세워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특허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특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올해 초 산학협력재단을 출범시켜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80% 이상을 발명자에 돌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00여건으로 추정되는 개인명의 특허 중 800여건에 대해서만 이관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생활 속의 지혜

경제 운전 이렇게 실행하자!

날이 갈수록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연료 소비도 줄이고 우리집 가계부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경제 운전 방법, 이렇게 해보자!



엔진 공회전은 금물

자동차가 주유 중이거나 3분 이상 정차할 때에는 꼭 시동을 끄자. 10분 동안 공회전을 할 경우 자동차 한 대당 200~250cc의 연료가 낭비된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간 4만원을 아낄 수 있다.

경제 속도를 유지하자

승용차는 60~80km/h로 달릴 때 연료 소비가 가장 적다. 평균 속도를 70km/h에서 100km/h으로 올리면 연료는 20~30% 정도 더 소비된다.

급출발, 급제동은 삼가야 한다

급출발 1회에는 100~150cc, 급제동은 완만한 제동에 비해 2배 이상 연료가 소모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주행 탄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승용차 10부제에 참여하자

10부제에 참여하면 승용차 1대당 연간 11만원 내외의 연료비가 절약된다. 우리 나라 승용차 943만대가 모두 참여하면 연간 1조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차계부를 쓰자

차계부를 기록하면 절약 주행을 할 수 있다. 주유량·주유거리·운행상태 등을 기록, 연비(주행거리÷연료소비량)를 점검하는 습관은 돈버는 지름길이다.